

■ 영국의 '지식 주도 경제' 구축 전략

- 지식주도 경제 구축 전략 : 미국 및 유럽 경쟁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해결하고 21세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함
 - 경쟁력 기반 구축 : 기업가 정신과 혁신 능력 극대화, 지식의 적극적 창출과 활용 기반 마련, 인력 교육과 숙련도 제고,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지식주도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범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함
 - 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: 지식주도 경제에서는 상호 치열한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므로, 업종별, 지역별 기업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, 기업에게는 최신의 경영기법들을 도입하도록 적극 지원함
 - 경쟁 환경 조성 : 효율성 제고와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되고 투명한 시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. 이를 위해 국내시장 및 EU시장의 장벽 제거,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시장 규율의 등장에 적극 대처 등을 추진함
- 시사점 : 미래 경쟁력의 요체가 지식, 숙련, 창조력에 달려있다는 인식 하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업무를 정부 부처간 혹은 정부-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

영국의 '지식 주도 경제' 구축 전략

□ 문제 제기

- (경제 활력의 부재) 미국과 유럽의 경쟁국에 비해 성장이 지체되고 생산성도 뒤떨어지며, 자체 경쟁력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
 - 생산성 격차 : 영국의 생산성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쟁국에 비해 20~40% 뒤져 있고, 특히 인접 경쟁국인 독일과 프랑스와의 생산성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자체 진단함
 - 경쟁력 기반의 취약 : 1981~1996년 동안 GDP 대비 기업 R&D 비중을 보면 일본이 약 1.4%~2.2%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, 미국과 독일이 1.5%, 프랑스 약 1.0% 대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, 영국은 1.0%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
- (새로운 환경의 도래) 유럽 통합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시장이 확장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새로운 경쟁력 기반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음
 - 영국은 21세기 경제를 '지식 주도 경제'(Knowledge Driven Economy)로 규정하고, 지식 주도 경제의 핵심 경쟁력을 지식(knowledge), 숙련(skill), 창조력(creativity)에 달려 있다고 봄
 - 영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지식 주도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 프로그램을 마련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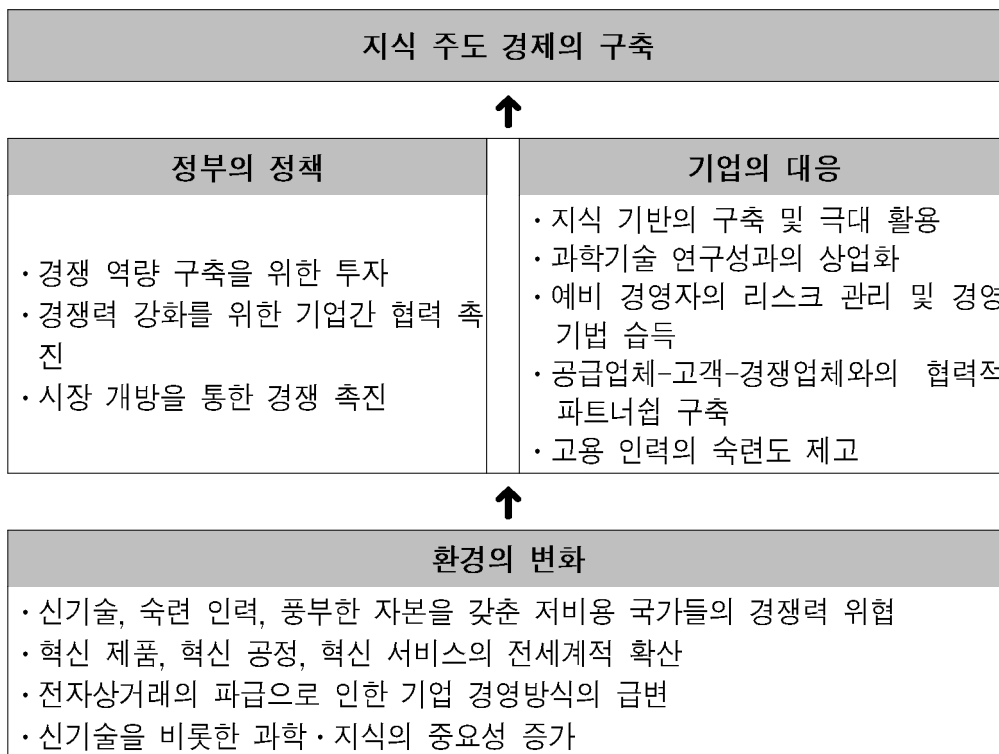
□ 영국 정부의 지식 주도 경제 구축 전략¹⁾

- (새로운 경쟁력 기반의 구축) 지식 주도 경제의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, 숙련기술, 자금조달, 디지털 기술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함
 - 기업가 정신과 혁신능력 극대화 : 창업 활동 권장을 위해 각종 기업 재무 및 문화적 장벽의 제거,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위한 벤처 자본가의 육성, 각종 규제의 제거, 경영자 육성을 위한 학교-기업간 연계 교육 등을 실시함

1) 전략의 주요 내용은 영국 정부가 1998년 12월에 내놓은 경쟁력 백서(Our Competitive Future Building the Knowledge Driven Economy)를 참조하였음

- 영국정부는 경영자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1천5백만 파운드, 창업지원을 위한 기금(Enterprise Fund)에 1억5천만 파운드를 지원함
- 지식의 적극적 창출과 활용 : 과학 및 공학(engineering) 기반의 정비를 위해 향후 3년간 14억 파운드 투입 예정, 대학과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, 해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 제고 등 추진
- 인력 교육과 숙련의 제고 : 인력의 숙련과 능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교육 프로그램(National Learning Target) 마련, 숙련 인력의 교육 극대화를 위한 기술산업부(DTI)와 교육노동부(DfEE)의 협조체제 강화 등 추진
-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 :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, 정보통신 산업의 적극 육성, 고도 정보화 사회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(Information Society Initiative) 추진

< 영국의 지식 주도 경제 구축의 흐름도 >



- (기업간 협력체제 구축) 지식 주도 경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별, 지역별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함

- **업종별 협력체제 구축** : 정보 공유와 숙련 기술의 갱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 파트너십 구축을 권장하고 있음. 예컨대, 자동차 산업은 파트너십 프로그램(SMMT Industry Forum)을 통해 생산성 2배, 재고회전을 2.6배 증가, 불량률 65% 감소 등의 실적을 달성함
 - **지역별 협력체제 구축** : 지역별 기업 활동, 인력 교육, 자금 조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지역개발청(RDA)과 지방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. 이를 통해 지역별 산업지구(cluster)의 육성을 촉진함
 - **최신 경영 기법의 도입** : 최신의 경영 기법 및 리스크 관리 기법을 도입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(Fit for the Future), 창업 기업에게 적합한 경영 모델의 개발과 확산 등을 통해 영국 기업들의 지식 활용 및 경영 경쟁력을 제고시킴
- (공정한 경쟁 촉진) 효율성 제고와 혁신 촉진을 위해 개방되고 투명한 시장체제를 구축하고자 함
- **시장 개방** : 국내 시장은 물론 EU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장벽의 제거, 단일 통화인 유러(euro)의 마찰 없는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함
 - **시장의 근대화** : 전자상거래의 등장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끔 기존의 시장 규율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. 특히 무형 재화의 거래, 소비자 보호, 지적재산권 보호, 온라인 국제거래, 상법, 자본의 이동 등과 관련된 문제를 주요 개선 과제로 선정함

□ 시사점

-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영국조차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을 지식기반 경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
- 첫째, 영국경제가 지식기반 경제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, 향후 국가 경쟁력의 요체는 지식 경쟁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
 - 둘째, 정책 수행에서 필요한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되, 범정부 차원의 거대조직을 만들기 보다 실무 위주의 작은 조직을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
 - 셋째,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공동협력을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

■ 강용중 연구위원 klucas@hri.co.kr ☎724-4046